

여야 정치권 상생으로 지역발전 전기 마련

리뷰 2017

②KTX 무안공항 경유

호남 차별 속원 사업 해결
접근성 개선·승객 증가 효과
조기 완공 촉구 목소리 높아

올해 광주·전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는 호남고속철(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확정이다.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야 정치권이 협치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며 의의가 크다.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광주송정~목포)의 무안공항 경유는 지난달 30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간 조율 끝에 최종 확정됐

다. 지난 2006년 국토교통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 11년만이다.
호남고속철도는 단계적 추진 계획에 따라 전체 구간 중 오송~광주송정 구간(1단계)만 2015년 개통됐다. 2004년 개통된 경부선(1단계)에 비해 11년이 늦어지면서 영·호남 차별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광주송정 이남은 노선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미뤄지면서 '반쪽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썼다. 이는 나주역 경유와 무안공항 경유 등을 놓고 지역 내 이견과 갈등이 촉발되기도 했지만, 이를 빌미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2단계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애초 개통 예정(2017년)에 비해 8년이 늦어지게 됐다.
2단계 구간은 광주송정~나주역~무안공항~목포역 노선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광주송정~나주 고속철 구간은 지난 1월 우선 착공했다.

고막원~무안공항~목포역은 2020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개통된다. 2025년이 돼야 호남고속철이 완공되는 셈이다. 이는 2010년 완공된 경부고속철에 비해 15년이나 늦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집중적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완공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호남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함에 따라 우리나라 양대 교통축을 이루는 경부-호남선 고속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은 물론 장래 철도망과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공항인 무안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전남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등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공항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2025년 연간 이용객이 272만명으로 급증, 무안공

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우뚝 선다.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동남아·러시아 등 다양한 국제노선 개발 가능하고, 망운 지역 항공특화산업단지(32만㎡) 조성을 통한 항공정비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KTX 운행 계획과 연계한 국제공항간 고속철도 연결, 국가 유사사나 기상이변시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기대된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무안공항은 안개일수가 적고(무안 17일, 인천 47일), 유사시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급변하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허브공항(인천) 정책에서 3각축(인천-김해-무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시립1요양병원 우선협상자 선정 탈락병원 반발 법적 대응 계획

환자 폭행 의혹을 빚어 광주시가 새 운영자를 찾고 있는 시립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의 운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종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병원이 광주시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공모한 이들 병원 민간위탁 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A병원은 18일,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광주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A병원 관계자는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에서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지만 부적격을 이유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가 절차 문제를 이유로 탈락시켰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의료재단 또한 모집공고에 명시된 신청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병원은 수탁자 선정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정일 사망 6주기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일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주기인 17일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 태양공원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정일의 참배 여부는 이날 밤늦게까지 보도가 나오지 않아 올해는 참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한때 제기됐다. 사진은 이날 평양에서 일반 주민 등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 헌화한 뒤 돌아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도, 올해 283개 기업과 3조 투자협약 18일 결산 행사서 8개 기업 1100억 신규 협약 맺어

가리미(대표 임복남) 40억원 ▲나주 혁신산단에 ㈜우성무역산업(대표 김만호) 77억원 ▲구례 자연드림파크(1단지)에 아이큐농산(대표 김기주) 50억원 ▲장흥 바이오산단에 세명(대표 조대현) 48억원 ▲영광 배수읍 대신리에 이수인베스코(대표 김성미) 750억원 ▲진도읍 쌍정리에 The랜드171관광호텔(대표 김정애) 50억원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에 땅끝에향(대표 성경희) 50억원 ▲장흥 동화면 용

정리에 (유)새한글로벌(대표 김원만) 70억원 등이다.
또 투자유치에 기여한 ㈜동일이엔티(대표 신점옥)·㈜다솜영농조합법인(대표 이준영) 등 4개 기업과 민간인·공무원 등 유공자 10명을 시상했다.
전남도 집계 결과, 올해 283개 기업과 3조345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간공원 개발 우선협상자 내년 1월 결정

9개동 주민 심사단 공모
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단체 가운데 경제·환경 14곳의 단체 관계자를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 주변 9개동에 거주하는 주민(만 18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도 진행된다. 심사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지원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통해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공모 공고는 시에서 시행한다.
광주시는 이처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마련된 기준안을 근거로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상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공청회 등)과 도시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공원의 기능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미집행 도시공원 21개소에 대해서도 민·관 거버넌스 회의 등에서 공명별 조성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 결정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겨울 가뭄 내년 봄까지 계속

장성·담양·영광·함평 등 물 확보 나서
전남도가 겨울 가뭄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생활용수 확보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강수량은 11월말 현재까지 852mm로 평년(1340mm)의 61%에 불과하다. 특히 서남부지역은 비가 적게 내려 신안 임자도, 완도 보길도 등 5개 섬지역은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가뭄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도 '주요단계'를 발령했다.
전남지역 광역상수원 평균 저수율은 36.3%로 지속적인 용수 확보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대책에 나섰다.
우선 장성 평림댐 수계지역인 장성, 담양, 영광, 함평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주암댐 계통 관로 연결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완료되면 매년 겪고 있는 이 지역 급수난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영광 염산면 일원 급수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해 농업용인 연화제에서 관로를 연결해 염산면 일원 상수원인 복룡제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3월 급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뭄이 심해 2일 급수 8일 단수를 하고 있는 완도 보길도와 노화도의 경우 지난 8월부터도 예비비 등 5억 원을 확보해 하천 하류에 흐르는 물과 유류 관정 등을 이용, 상수원인 부항제에 물을 채워 넣고 있다. 또 항공적 급수난 해소를 위해 보조수원 개발도 추진 중이다.
주 1일 급수 중인 완도 보길도와 인접한 남도의 경우 지난 8월부터도 예비비 등 8억 원을 확보해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를 통해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맡겼다.
전남도는 또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땅 속으로 스며드는 물을 줄이기 위해 구레, 고흥, 신안, 화순, 강진 등 6개 군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동식 전남도 환경국장은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뤄지는 만큼 도민 모두가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상품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 해외여행 · 국내여행
-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 허니문 · 단체여행
- 골프투어 · 기차여행

www.daewontour.com

겨울 전세열차 상품 <small>1인 이상 출발</small>	① 울산 간절곶 새해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12월 31일(일)	99,000원
	② 정동진 · 월정사 · 휴휴암 기차여행(무박 2일)	1월 05일(금)	120,000원
	③ 태백산 눈꽃축제 ·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④ 정동진 일출 · 하이원스키장 관광 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정기열차 상품 <small>최소 출발인원 확인</small>	① 남이섬 자유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② 대둔산 케이블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75,000원
	③ 남해 보리암 · 독림마을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④ 서천 국립생태원 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⑤ 서울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08,000원
	⑥ 정동진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20,000원

섬여행 상품	① 홍도 · 흑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② 울릉도 · 독도 여행(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③ 거문도 · 백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④ 청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⑤ 백령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55,000원~
	⑥ 대마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90,000원~

버스여행 상품	① 고령 고분군 트레킹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② 날뚝보소 밀양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30,000원
	③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운행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50,000원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지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후원 | **KORAIL** 광주본부 울산광역시